

불법조업 나포 중국어선 대상 '담보금 대납업' 판친다

목포서 올 124척 76억 납부 ... 수수료 10% 이상 쟁겨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되는 중국 어선들을 대상으로 담보금 대납업이 성행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 쟁겨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담보금 대납업 과정에서 자칫 사건 앞선·단속 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실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1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 현재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124척에 부과된 76억 6850만원의 담보금을 모두 대납업자가 납부했다. 이들은 대납 조건으로 최소 1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쟁겨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약 5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검거한 요단어25600·25601호(각 130t)도 2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된 대납업자가 납부하고 19시간 만에 석방됐다.

어선 종량, 혐의 등에 따라 다르지만 100t 이상 중국 어선이 허가 없이 조업하다 적발, 나포될 경우 통상 1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담보금 대납업자들은 당 당 수수료로 최소 15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가.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매년 끊이지 않는데다, 대형 어선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쟁겨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담보금 대납 업무를 맡으려는 업자들의 진입 경쟁도 치열하다. 미리

해경, 정보 유출 차단 주력

중어선 "빨리 돈 내고 또 출어"

불법 조업 양성화 우려까지

불법 조업 어선이 불법히 압송되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로 단속 여부를 확인해오는가 하면, 대납 업무를 맡겠다는 업자들이 한꺼번에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해경은 더 나아가 대납 업무 과정에서 자칫 단속 정보 유출·사건 앞선 등의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이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을 정도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 대납업자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정식 환전 과정 등을 거쳐 처리하는 것보다 빨리 조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급기야 중국 정부는 담보금 대납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중국 어선들의 민원이 속출해 지난 2011년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담보금 납부를 위한 공식 장구 마련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납 업무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납업자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여부나 얼마나 과도한 수수료를 쟁겨는 지 등 실제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해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중국어업협회, 한국수산업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담보금 업무 처리 장구 일원화에 합의했다.

1원칩 (9020) 김장두



광주시 북구 풍향동과 광주교대를 연결하는 산책로인 '동향 둘레길'이 개통됐다. 18일 주민들이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동향 둘레길을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욕 노인' 돌연사

광주서 잇따라 사망 ... 심혈관계 질환자 '조심'

기력이 약하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추운 날씨에 목욕탕을 이용하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약자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A목욕탕에서 정보(79)씨가 고온탕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들은 "정씨가 탕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아 가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A목욕탕에 들어온 뒤 온탕에서 20분 이상 몸을 담근 채 '반신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인 정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심장마비로 인해 돌연사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알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심장마비로 인해 돌연사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B목욕탕에서 강모(여·69)씨가 온탕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이날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만에 숨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강씨가 탕에서 음료를 주문해 마신 뒤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령인 강씨가 평소 혈압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심장마비로 인해 돌연사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설날 씨름 승부조작 2명 구속

전주지검은 1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안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군산에서 열린 설날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상대 선수인 장모(37)씨와 짜고 시합을 벌여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사이에서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000만~2000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전주=박금석 전북특파원부장

"모델 자판기서 불량품" 분 못삭여... ○...모델 무인 자판기에서 구입한 불량 전동선인 용품을 교환하려 했으나 거절 당하자 화끈에 모델 현관문을 훼손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6)씨는 17일 낮 1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S모델 1층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 등을 파손시켰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자판기에서 산 성인용품이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작동이 안돼 주인에게 교환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해 분을 삭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법원,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40대 '화학적 거세' 명령

다방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성총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총동 약물치료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총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목포에서 첫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세 번째 사례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모텔에서 차배달을 시킨 뒤 배달 여종업원을 함께 성폭행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총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목포에서 첫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세 번째 사례다.

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중 실시한 공주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다방 종업원만 보면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A씨는 동종 실험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고 이번에도 출소할 지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으로 조사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입건된 북구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인근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귀태가' 현수막 공무원 8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입건된 북구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인근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산경찰도 이날 울지 연습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광산구청 노조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 공무원들에게 울지연습 반대 유인물 538장을 뿌린 혐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 학부 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2차	정시
인문	인문학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7	5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콘텐츠, 싱어송라이터 등)	-	5	
총 계		31	3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일: 2013. 11. 21(목)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일: 2014. 1. 3(금)

■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 신학대학원 신입생 특별전형 】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선발하는 학과와 학부과정의 동일계열 출신자만 해당됨.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1. 11(월) - 22(금)
② 전형일: 2013. 11. 26(화) 오후 4:00

【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2. 2(월) - 10(화)
② 전형일

학과	필기 및 실기고사	면접고사
신학과(Ph.D.)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목회학과(D.Min.)	-	2013. 12. 13(금) 오전10:00
신학과(Th.M.)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신학연구학과(M.A.T.)	-	2013. 12. 13(금) 오전10:00
유아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음악학과(M.A.)	2013. 12. 14(토) 오후3:00	실기고사 후
신학과(M.Div.)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사회복지학과(M.S.W.)	-	2013. 12. 14(토) 오후3:00
평생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한국어교원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1027 대학원 062)605-1115, 1024, 1021